전남, 한우평가 대통령상… 명품 한우 우수성 입증

낙찰가 9005만원 '역대 최고'
전남 40농가 출전 3개 상 수상
전국 최초 대통령상 2회 '영예'
우수혈통 송아지 공급 등 성과

전남 축산농가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누적 2회 수상하면서 전남 명품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대통령상 수상 한우는 1++A 등급에 출하체중(1028㎏)과 도체중(647㎏)이 다른 수상 한우보다 월등히 높아 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9005만800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격도 전국 평균 도매가격(㎏당·1만8000원)의 7.7배가 넘는 ㎏당 14만원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전날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2023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에서 3개 농가가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대회는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체외·외모심사, 도축성적 등을 한국종축개량협회 심사위원들이 최종 평가해 순위를 선정한다.

올해 대회는 전국에서 268농가가 참여했다. 전남에선 40농가가 출전해 총 13개 상 중 가장 많은 3개 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선 영암 푸른농장 서승민 농가가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승민 농가는 지난 2013년에도 대통령상을 받이 전국 최초로 대통령상을 2번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 농식품 장관상은 함평 나형규 농가,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장상은 화순 김정란 농가가 수상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 한우 개량을 위해 노력한 한우 사육 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대한민국 한우산업을 주도하고 축산업의 새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최근 10년간 6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전남 한우의 명성을 전국으로 알렸다.

이는 농장별 유전자와 유전체 분석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축산을 통해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도내 한우 농가에 공급해 개량을 가속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 52개 기업·기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광주시는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2개, 유효기간연장 15개, 재인증 15개 등 총 5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가족친화인증은 올해까지 총 130개 기업·기관이 받았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해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 상황을 반영한 개정 인증기준이 도입됐다.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이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이다. 광주시는 올해까지 총 130개사(중소기업 95, 대기업 3, 공공기관 32)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다수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중앙정부, 각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239개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심사 우대 지원 등 총 17개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번 인증지표 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가족친화경영지원금도 일부 개정해 운영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최권범 기자

서구 독서동아리 송년의 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50개 독서동아리 회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지난 19일 서구청에서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구 독서동아리 송년의 밤'을 갖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적극 나선다

기본계획 수립·현장의견 수렴

광주시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관협치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주로 진행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 따라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실행계획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 위원을 구성해 4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위원들은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진단과 평가를 시행하고 민관협치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

강기정 시장 또한 시정의 성장을 위해서는 민관협치가 중요하다고 판단, 간부회의 등에서 민관협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출범한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 출범 이후 9개 분과위원회 49회 회의와 21건의 발굴 의제를 발굴했다. 광주시립병원 공공갈등 해법 모색을 위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집담회 개최,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잠깐 멈춤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공동의장인 정영일(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관협치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협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책임감 있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는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큰 격려를 통해 시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지하철2호선 2단계 공사 착공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24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지역현안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전남형 청년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회

전남도는 20일 나주혁신도시 공유오피스에서 청년이 직접 청년문화를 기획하고 성장을 이끄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앞당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에는 청년공동체와 시·군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134개 팀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21개 팀을 추천받아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합산해 우수 청년공동체 10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시·군별 우수 청년공동체는 여수 원투씨, 순천 그래퍼스, 광양 전남부모소리, 담양 청담발전쇼, 고흥 골드마운틴, 강진 다함성교육공동체, 무안 겟목(get木), 영광 모다지다, 장성 청춘그루터기, 완도 생일초록공방이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선 다양한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공동체팀 간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10개 팀에는 전남도지사 표창과 우수 청년공동체 기념패 수여와 함께 향후 활동 성과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지역 청년과 타지 청년 5인 이상이 공동체를 구성하면 시·군별로 지원 대상을 선발한다. 팀별로 800만원의 수행 경비를 지원받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돕는다.

이날 진행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는 전남도 청년센터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건전성과 계획성 부문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건전·효율·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비교·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건전성과 계획성 분야에서 도본청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유동 부채비율과 공기업 부채비율을 타 시·도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킨 성과다.

또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예산 편성 시 최근 5년간 예·결산 평균 증감률, 부동산 거래 동향, 소비지수,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 경제 상황과 전문경제 자료를 활용해 세수 오차 비율을 줄이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높였다.

정현구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재정 건전성과 계획성은 물론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회' 성과 공유

청년문화패스 등 35건 정책 제안
광주-대구청년달빛교류 등 성과

광주시 청년참여기구인 제8기 청년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활동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역대 가장 많은 35건의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제8기 청년위원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제8기 청년위원회는 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삶의 질, 참여·소통 등 4개 분과활동을 통해 지역청년 및 타 지역 청년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제8기 청년위원회는 △광주청년 프리랜서 상병수당 △로고송 콘테스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청년팔찌 △청년저축 웨딩 지원사업 등 역대 가장 많은 35건의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등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가운데 △광주청년문화패스(김성연·최우수상) △광주청년원탁회의(김민국·우수상) △광주청년 취업멘토링 온라인 시스템, 인문·사회분야 역량개발 및 취업 지원(김지은·우수상) △예비청년과 일반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안내 서비스(이상훈·장려상) △너도 나도 듣고 싶은 강연(박성준·장려상) 등이 우수정책으로 꼽혔다.

광주시는 법령과 사업 중복성 등 사업 목적·내용·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일차적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실행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 전북 등 타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며 광주 청년정책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했다. 특히 올해 10월 광주청년교류총회에 대구 청년들을 초대해 민선 8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조성에 대해 보고하고,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8년째 광주-대구 청년달빛교류를 이어갔다.

다양한 청년정책이 제안된 만큼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강기정 시장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강기정 시장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주거·교육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민선 8기 광주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나'를 위한 내일의 기회, 일자리·주거·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손을 잡고 주저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